

펀드환매 후 재투자 여부에 따른 금융투자행동 비교

차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부교수)
강주연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석사과정)
구지연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석사과정)

저금리 추세와 지속, 인구고령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금융시장의 복잡화 등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투자대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안전성 위주의 전통적인 저축수단만으로는 생활표준을 달성하고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 등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금융시장에는 투자대상, 운용방법 등이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유형이 펀드라고 할 수 있다. JP모간자산운용이 전국 25~65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투자자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평균 1.5개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투자규모는 2,150만원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3.3.12). 2011년 펀드투자자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0.2%가 현재 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보유펀드 개수는 2.9개, 평균 투자액은 4,881만원이었다(한국투자자보호재단, 2011).

펀드투자가 증가하면서, 펀드 가입 못지않게 환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실무에서 적용되는 일반 원칙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행동재무학적 요인, 투자경험 등이 환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펀드 환매의 경험은 펀드 재투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투자자보호재단에서 실시한 2011년 펀드투자자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환매 후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집단(n=889)과 투자하지 않는 집단(n=669)의 인구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특성과 금융투자행동을 비교하였다. 특히 환매한 펀드의 투자경험이 펀드 재투자와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환매한 펀드의 보유기간, 환매이유, 환매 후 손익발생 여부 등을 비교하였다. 환매한 펀드는 거치식(n=557), 적립식(n=1,059), 임의식(n=279)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환매한 펀드가 한 개 이상인 경우 각 펀드의 정보를 수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펀드환매 후 재투자 여부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 직업, 그리고 투자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이, 고졸 이하 보다는 대졸이상이 환매 후 다시 펀드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 종사자들은 환매 후 재투자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관리직, 기술직은 환매 후 펀드를 다시 보유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본인의 투자성향을 가장 보수적인 안정형이라고 답한 조사대상자들은 환매 후 다시 펀드를 보유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나머지 집단(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에서는 환매 후 재투자하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펀드환매 후 재투자 여부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환매 후 재투자 하는 집단의 가계소득, 총자산,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 보유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가계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집단,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는 펀드 환매 후 재투자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가계소득이 400만원 이상, 자가를 보유한 가계는 재투자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펀드환매 후 재투자 하는 집단의 총자산은 5억 1,125만원으로, 재투자 하지 않는 집단의 총자산(3억 8,584만원)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구체적으로 재투자 집단의 금융자산은 1억 5,766만원, 부동산자산은 3억 1,754만원이고, 재투자 하지 않는 집단의 금융자산은 1억 115만원, 부동산자산 2억 5,503만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총부채 규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환매 후 펀드에 재투자 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환매 전 펀드를 보유했던 기간이 길었고, 특히 거치식, 적립식펀드는 3년 이상 보유한 후 환매한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환매한 이유를 살펴보면, 환매 후 재투자 하는 집단은 목표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환매 후 재투자 하지 않는 집단은 원금을 손실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는 거치식, 적립식, 임의식에서 공통적이었다. 펀드 환매 후 손익 발생 여부를 비교한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펀드 환매 후 이익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펀드에 재투자 하는 집단(거치식 50.3%, 적립식 72.6%, 임의식 53.2%)이 재투자하지 않는 집단(거치식 26.1%, 적립식 34.1%, 임의식 27.0%)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펀드 환매 후 손실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환매 후 펀드투자를 하지 않는 집단(거치식 61.4%, 적립식 47.7%, 임의식 56.8%)이 재투자 하는 집단(거치식 39.4%, 적립식 19.7%, 임의식 34.6%)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해서 환매했느냐, 손실이 발생해서 환매했느냐의 경험이 펀드 재투자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환매한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은 매몰비용이며, 향후 펀드투자 의사결정과는 분리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펀드를 환매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 높은 펀드부터 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등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환매를 결정할 때는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펀드 환매 후 재투자 여부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투자경험을 비교함으로써, 그러한 내적, 외적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펀드투자 및 환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행동재무학적 변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불확실성 하에서의 금융소비자 선택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